

교양체육수업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체육가치관형성의 차이

김은혜 · 박수현* · 박주영

신한대학교 · 송실대학교

Investigating Differences in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Class Students' Formation of Physical Education Values across Individual Characteristics

Kim, Eunhye · Park, SooHyun · Park, Jooyoung

Sinhan University · Soongsi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formation of physical values acros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nts were students(n=129) attending a physical education class in a Korean university.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18.0 with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es,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one-way ANOVA.

Results indicat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hysical values, social values, and educational values across gender. Seco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hysical values, social values, and educational values across grade. Thir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educational values across course experiences. For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values across subjective health status.

Key word :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formation of physical education valu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I. 서론

체육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시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발달을 돕는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 특히 습관적 체제가 아닌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내고 그 가능성의 결과를 얻는 인간활동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는 매우 크다. 이에 김금주(2000)는 현대 사회에 들어와 참교육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의 체육수업은 대학생들의 신체적건강을 증진시켜 주고 바람직한 사회성과 도덕성을 함양시켜 삶을 즐겁고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고, 더불어 대학 졸업 후에도 여가를 활용할 줄 아는 인간으로 성장시켜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렇게 체육이 교육적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해 일부 교과목의 선택권이 학생들에게로 옮겨져 가고 있다. 즉,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특정 교과에 한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김윤희, 강신복, 2000). 이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이라는 교과목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일부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체육수업의 경험도 하지 못한 채 대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체육이 독립적으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될 수 있고 체육수업의 참여에 의한 긍정의 효과를 각인시키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대학교에서 교양체육수업의 목표는 건강관련지식 습득을 올바르게 인지하여 교육적가치관을 형성하고, 협동, 단합을 통한 인내심을 함양시켜 사회성 발달을 위한 사회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 시켜주는데 있다. 더불어 수업 후 여가활동을 통한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이어나가 신체적 건강한 삶,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신체적 가치관을 형성해서 전인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국지수, 2005; 박소연, 2007).

이렇게 교양체육수업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체육가치관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체를 조화롭게 발달시켜, 신체기관의 기능 및 체력을 향상시켜주고 바른 자세와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기만을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 신체적 가치관, 두 번째는 건전한 경쟁과 협력의식을 높여주어 사회성을 길러주며 또한 여가활용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가치관, 세 번째는 양적, 질적으로 다양하게 구조화된 움직임을 통하여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의 습득 뿐 아니라 확고한 자아개념을 형성시켜 주는 교육적 가치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병찬, 2004).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이 체육에서 얻어지는 가치를 올바르게 형성시켜 신체움직임 결핍을 호소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올바르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바른 체육가치관형성 중에는 개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스스로 건강하나 안하나의 마음가짐, 즉 신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의 건강을 모두 반영하여 개인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지각, 평가하는 것으로서(서연태, 정기천, 김춘중, 2013; 유대현, 여인성, 2013; Eriksson, Unden, & Elofsson, 2001; Kaplan, Barell, & Lusky, 1988; Ware, 1986) 한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주관적으로 내리는 평가 혹은 인식으로 본다. 유대현과 여인성(2013)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할수록 건강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개인 스스로가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은 자신의 건강인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현재까지 체육가치관에 관한 많은 연구(김병찬, 2004; 김영식, 박대권, 2012; 문광현, 1998; 박정호, 오형석, 이준석, 2015; 박치현, 2001; 정기호, 2008; 조익두, 2008)들이 진행되어져 왔지만 대학 졸업 후 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야말로 체육가치관형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속하는 성별, 학년, 수강경험, 주

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체육가치관 형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대학생들에게 체육수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시켜 향후 대학교 교양체육수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양체육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성별,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수강경험)에 따른 체육가치관형성(신체적 가치, 사회적 가치, 교육적 가치)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표 1. 개인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개인적 특성	빈도
성별	남자	47
	여자	81
학년	1학년	45
	2학년	70
	3학년	7
	4학년	6
교양체육 수업경험	1회	64
	2회	47
	3회	12
	4회	5
주관적 건강상태	아주 나쁘다	2
	나쁘다	29
	보통이다	58
	좋다	30
	아주 좋다	9
합계		129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4년제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현재 교양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170명을 편

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연구대상 170명 중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165명이었고, 회수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실제 분석인원은 총 129명(남자 47명, 여자 81명)이었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빈도분석은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 교양체육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체육가치관형성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한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다.

이 연구의 설문지는 남선민(1997), 문광현(1998), 김대현(2003), 김새롬(2003)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는 설문문항을 기초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변수별 설문문항 및 문항수는 <표 2>와 같다.

교양체육가치관 요인별 문항수는 신체적 가치 7문항, 사회적 가치 7문항, 교육적 가치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5단계 Likert척도(1점 전혀아니다-5점 매우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의 신뢰도는 신체적 가치 Cronbach's α 값은 .93, 사회적 가치 Cronbach's α 값은 .94, 교육적 가치 Cronbach's α 값은 .91로 나타났다.

표 2. 설문지 구성내용 및 문항수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개인적 특성	성별	1
	학년	1
	교양체육수강경험	1
	주관적 건강상태	1
체육가치관형성	신체적 가치	7
	사회적 가치	7
	교육적 가치	5
총계		23문항

3. 자료처리

이 연구는 교양체육수업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체육가치관형성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8.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통계 방법은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ze), 독립표본의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 값의 유의 수준은 $\alpha=.05$ 로 설정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이 연구는 교양체육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체육가치관형성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교양체육수업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체육가치관형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교양체육참여자의 성별은 체육가치관형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가치관형성 하위요인 신체적 가치는 남학생 평균 3.99로 여학생 평균 3.64보다 높았으며, 사회적 가치에서도 남학생 평균 3.73으로 여학생 평균 3.25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 하위요인 교육적 가치 또한 남학생 평균 3.74로 여학생 평균 3.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병찬(2004)의 대학교양체육의 수업 참가와 체육가치관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은 체육가치관형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이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체육가치관의 평균점수에서는 김창현과 정구인(2015)의 학생과 교사 성별에 따른 중학교 체육 수업 재미거리 비교 분석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취감, 신체적, 정신적 건강유지 등 재미거리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이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비록 유의한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체육가치관형성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가치의 문항에서 교양체육이 체력을 유지, 증진하는데 도움을 준다가 특히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보아 현대발달로 대학생들의 움직임 부족이 교양체육수업을 참여함으로써 움직임에 대한 신체적 가치 수준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고 생각된다.

둘째, 교양체육참여자의 학년은 체육가치관형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가치관형성의 첫 번째 하위요인인 신체적 가치는 3학년 평균 4.00, 2학년 평균 3.78, 1학년 평균 3.74, 4학년 평균 3.6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 하위요인인 사회적 가치는 3학년 평균 3.71, 2학년 평균 3.42, 1학년 평균 3.41, 4학년 평균 3.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하위요인인 교육적 가치는 3학년 평균 3.74, 4학년 평균 3.66, 2학년 평균 3.52, 1학년 평균 3.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병찬(2004)의 대학교양체육의 수업참가와 체육가치관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3학년이 1학년, 2학년, 4학년 보다 체육가치관형성의 하위요인 신체적 가치, 사회적 가치, 교육적 가치 모두가 높은 점수를 보여 이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셋째, 교양체육참여자의 수강경험은 체육가치관형성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가치관형성 첫 번째 하위요인인 신체적 가치는 수강경험 2회 평균 3.90, 4회 이상 평균 3.88, 3회 평균 3.76, 1회 평균 3.6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 하위요인인 사회적 가치는 수강경험 2회 평균 3.55, 3회 평균 3.46, 1회 평균 3.37, 4회이상 평균 3.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인 교육적 가치는 수강경험 4회 평균 3.80, 2회 평균 3.69, 3회 평균 3.58, 1회 평균 3.33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후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기호(2008)의 체육의 가치관 형성과 체육학습 참여와의 관계에서 체육수업에 참여했던 학생이 참여를

표.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체육가치관형성의 차이

		n=129						
변인		구분	신체적 가치		사회적 가치		교육적 가치	
			M	SD	M	SD	M	SD
성별	남학생	47	3.99	.79	3.73	.75	3.74	.77
	여학생	81	3.64	.63	3.25	.77	3.30	.76
	F		1.582		.352		.055	
학년	1학년	45	3.74	.63	3.41	.84	3.44	.78
	2학년	70	3.78	.79	3.42	.78	3.52	.81
	3학년	7	4.00	.48	3.71	.91	3.74	.71
	4학년	6	3.61	.63	3.26	.39	3.66	.53
	F		.355		.384		.403	
수강경험	1회 (A)	64	3.67	.77	3.37	.75	3.33	.76
	2회 (B)	47	3.90	.67	3.55	.91	3.69	.81
	3회 (C)	12	3.76	.57	3.46	.58	3.58	.66
	4회이상 (D)	5	3.88	.30	3.05	.32	3.80	.60
	F		.986		.847		2.261* A<D	
주관적건강상태	아주 나쁘다 (A)	2	3.92	1.51	4.50	.70	3.60	1.97
	나쁘다 (B)	29	3.70	.81	3.40	.85	3.44	.85
	보통이다 (C)	58	3.67	.61	3.19	.77	3.35	.73
	좋다 (D)	30	3.94	.50	3.69	.54	3.77	.57
	아주 좋다 (E)	9	4.04	1.26	3.93	.90	3.80	1.05
	F		1.179		4.270** B<D		1.789	

* $p<.05$, ** $p<.01$

하지 않았던 학생보다 체육가치관형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이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특히, 수강경험이 4회 이상의 학생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나타난 결과는 체육수업을 들을수록 교양체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신체움직임을 통한 전인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게 되며 끊임없는 건강에 대한 자기 노력으로 수업이 종료된 후에도 생활스포츠로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교양체육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체육가치관형성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가치관형성 첫 번째 하위요인인 신체적 가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아주좋다 평균

4.04, 좋다 평균 3.94, 아주나쁘다 평균 3.92, 나쁘다 평균 3.70, 보통이다 평균 3.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사회적 가치는 아주 나쁘다 평균 4.50, 아주 좋다 평균 3.96, 좋다 평균 3.69, 나쁘다 평균 3.40, 보통이다 평균 3.1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세 번째 하위요인인 교육적 가치는 아주 좋다 평균 3.80, 좋다 평균 3.77, 아주 나쁘다 평균 3.60, 나쁘다 평균 3.44, 보통이다 평균 3.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남진(2001)의 직장 여성들의 운동실천이 신체적, 정신적,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서 운동을 참여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지한다는 연구결

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대학생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게 인지할수록 사회적 가치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가치에 해당되는 체육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신체움직임은 스트레스 해소,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 등에 대한 가치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연구 대상의 범위가 다소 한정적인 것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대학생들의 신체움직임의 결핍을 해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교양체육수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수강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교육적 가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교양체육수업이 학생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켜주고 체육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신체활동을 통해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전인교육의 실현을 이끌 수 있게 자아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남궁윤(2014)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양체육수업참가에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를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체육가치관형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여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여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교양체육수업에 참여하여 체육가치관형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교양체육수업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체육가치관형성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체육수업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중 성별

은 체육가치관형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교양체육수업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중 학년은 체육가치관형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교양체육수업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중 수강경험은 체육가치관 형성 하위요인 중 교육적 가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교양체육수업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중 주관적 건강상태는 체육가치관형성 하위요인 중 사회적 가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체육참여자와 비교집단이 될 수 있는 교양체육비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울 몇 학교로 대상을 한정 짓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의 학교로 연구대상을 활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적 특성 이외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체육가치관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독립변인을 두어 깊이 있는 연구로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지수(2005). 대학생의 교양체육 참여동기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김금주(2000). 대학교양체육 수업의 선호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김남진(2001). 직장 여성들의 운동 실천이 신체적, 정신적,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0(4), 125-137.
- 김대현(2003). 대학교교양체육의 수업만족이 생활만족과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

- 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병찬(2004). 대학교양체육의 수업 참가와 체육가치관 형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새롬(2003). 고등학생의 체육수업 참가와 체육가치관 형성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식, 박대권(2012). 초등학교 예비 교사들의 체육가치관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8(4), 81-99.
- 김윤희, 강신복(2000). 중학생의 체육수업 걱정거리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9(2), 583 -594.
- 김창현, 정구인(2015). 학생과 교사 성별에 따른 중학교 체육 수업 재미거리 비교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0(2), 27-41.
- 남궁운(2014). 대학교 교양체육수업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가 스포츠 가치관 및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남선민(1997).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가 스포츠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문광현(1998). 사회계층과 스포츠 가치관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소연(2007). 대학생의 교양체육수업 참여동기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박정호, 오형석, 이준석(2015). 대학교양체육수업 참가자의 신체적 자기개념과 체육가치관형성의 관계: 잠재평균비교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4(2), 433-448.
- 박치현(2001). 중고등학생의 스포츠 참가유형과 스포츠 가치관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대학원.
- 서연태, 정기천, 김춘중(2013). 장애노인의 운동 참여 수준과 주관적 건강 평가의 관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2(4), 589-597.
- 유대현, 여인성(2013).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일상생활 및 운동능력, 사회적 관계의 인과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2(1), 351-361.
- 정기호(2008). 체육의 가치관 형성과 체육학습 참여와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7(3), 597-606.
- 조익두(2008). 중학교 교사들의 스포츠참가에 따른 체육가치관 및 인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Eriksson, I., Unden, A. L., & Elofsson, S.(2001). Self-rated health. Comparisons between three different measures. Results from a population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0(2), 326-333.
- Kaplan, G., Barell, V., & Lusky, A.(1988). Subjective state of health survival in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3(3), 114-120.
- Ware, J. E. (1986). The assessment of health status: Applications of social science to clinical medicine and health policy.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논문투고일 : 2015. 10. 31.
심사일 : 2015. 12. 15.
심사완료일 : 2015. 12. 30.